

# 아동의 주거상태와 아동발달<sup>1)</sup>

*Housing and child development*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세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주거는 아동이 자라나는 가장 주요한 공간이며, 주거가 부적절할 때 가장 큰 고통과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동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주거와 임대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와 학교폭력 피해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빈곤밀집효과(concentrate effect)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관련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빈곤주거 아동은 비빈곤주거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거 아동은 관련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비빈곤아동에 비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에 빈곤밀집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거가 아동발달의 독립적인 요인임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1. 문제제기

주거는 아동이 자라나는 가장 주요한 공간이다. 아동은 주거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주거는 아동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거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발달, 안전,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인기 소득과 직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rker, 2006<sup>2)</sup>). 주거가 부적절할 때 가장 큰 고통과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동일 것이다. 열악한 주거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Dunn, 2003<sup>3)</sup>; Pollack, Knesebeck, & Siegrist, 2004<sup>4)</sup>), 아동은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Vandivere, Hair, Theokas, Cleveland, McNamara & Atienza, 2006<sup>5)</sup>). 또한,

1) 본 원고는 2008년 제 1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발표문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2) Harker. (2006). Chance of a lifetime—the impact of bad housing on children’s lives.  
3) Dunn, James R.(2003). Housing as Socio-Economic Determinant of Health: Assessing Research Needs. Research Bulletin No. 15, Centre for Urban and Community Studies.  
4) Pollack, Knesebeck, & Siegrist, J. (2004). Housing and health in German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8.

열악한 주거는 부모에게 심리적 우울을 줄 수 있으며, 부모의 인내수준을 낮추고, 아동과 부모 간의 갈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vans, Chan, Wells & Saltzamn, 2000<sup>6)</sup>; Saegart & Evans, 2003<sup>7)</sup>). 빈곤밀집지역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성인 역할 및 또래 집단의 비행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Wilson, 1987<sup>8)</sup>;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sup>9)</sup>). 게다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와 낙인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유병덕, 2004<sup>10)</sup>) 때문에 주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클 수 있다. 주거 관련 문제로 고통 받는 아동들은 이미 빈곤하여 건강과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거 상태와 아동발달간의 관계는 아직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빈곤층의 주거가 도시 곳곳

에 흩어져 있어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2006년 현재 총 주택 재고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도 2.97%에 불과<sup>11)</sup>하기 때문에 공공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자연히 지금까지의 주거 연구는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 개인의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재엽, 정소연, 1997<sup>12)</sup>; 홍인욱, 2002<sup>13)</sup>; 유병덕, 2004; 하성규, 서종규, 2006<sup>14)</sup>; 홍인욱, 김진숙, 배현주, 조현희, 2006<sup>15)</sup>). 이러한 연구들은 주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빈곤주거와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여러 면에서 확인해주고 정책적 개입의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서베이는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데이터가 아닌 만큼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으며, 설문 의 범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 통제변수들을 설정한 상태에서 주거

의 독립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이것을 일반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국 복지패널 제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주거상태와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때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 형태의 대표적인 형태인 공공임대주택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빈곤주거를 빈곤주거와 구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밀집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절대빈곤과 공공임대주택의 상호작용항과 절대빈곤과 빈곤주거의 상호작용항을 설정하고 이 변수의 통계적 영향력을 확인할 것이다.

주거는 아동의 건강,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성취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적 자원 이외에 다른 자원이 거의 없는 빈곤층의 경우 자녀의 학업 성취를 통한 이후의 직업적 지위 획득이 계층이동을 달성하는 가장 주요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빈곤주거에 사는 경우 아동들의 놀림감이 되고(Harker, 2006),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아동들이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경험한다는 연구(유병덕, 2004; 건설교통부, 2005<sup>16)</sup>; 하성규, 서종규, 2006)에 따라 주거가 학교폭력 피해의 표적특성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분석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까지 포함함으로써 패널로는 유일하게 전국 대표성 있는 데이터로 평가된다. 주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패널과 구별되는 장점이다. 특히 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은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에 대한 깊이 있는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주거와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일반화하기에 적절한 데이터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가구조사와 아동부가조사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 2) 변수의 측정

학업성취와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빈곤주거, 공공임대주택 주거와 절대빈곤과 공공임대 상호작용, 절대빈곤과 빈곤주거 상호작용항이 여전히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학업성취 모형과 학교폭력피해 모형을 따로 구성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인 빈곤주거와 공공임대주택 변수의 정의와 측정은 다음과 같다. 빈곤주거는 방이 하나이거나, 상하

5) Vandivere, Hair, Theokas, Cleveland, McNamara & Atienza. (2006). How Housing affects child well-being. For smart Growth and Livable Communities.  
 6) Evans, Chan, Wells & Saltzamn. (2000). Housing quality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3).  
 7) Saegart & Evans. (2003). Poverty, Housing Niches, and Heal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Issues*, 59(3).  
 8) Wilson, W.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9)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10) 유병덕(2004). 도시빈민의 사회문화적 특성-청주시 S영구임대아파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9호  
 11) 이는 영국 17.8%(2005), 프랑스 19%(2002), 네덜란드 36%(1999), 일본 7%(2003)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김용창(2008).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특강 자료)  
 12) 김재엽·정소연(1997).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중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호.  
 13) 홍인욱(2002). 지하주거의 실태와 문제점. 도시연구, 제8호.  
 14) 하성규·서종규(2006).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3호.  
 15) 홍인욱·김진숙·배현주·조현희(2006). 빈곤아동청소년생활실태 및 주거지원방안모색. 한국도시연구소.

16) 건설교통부(2005). 영구임대주택주거실태조사.

수도·화장실·부엌·목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건교부의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사용방수와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 등의 시설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박신영, 진미윤, 최은희, 2002<sup>1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정의하는 빈곤주거는 건교부 기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분석대상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모두 방이 2개 이상이고, 전용부엌과 전용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정의하는 빈곤주거와는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된다. 비빈곤주거를 기준변수로 하여 빈곤주거와 영구임대아파트를 더미 변수로 포함하였다. 학업성취모형에는 이 밖에 아동의 성별, 양부모여부, 모의 교육수준,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여부, 사교육비를 통제하였다. 학교폭력피해 경험모형에서는 아동의 성별, 양부모여부, 모의 교육수준,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여부, 학년, 자아존중감, 친구 비행정도를 통제하였다.

### 3) 연구모형

먼저, 주거가 학업성취와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학업성취와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빈곤밀집효과(concentrate effect)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절

대빈곤과 공공임대주택, 절대빈곤과 빈곤주거 상호작용항을 설정하고 이 변수의 통계적 영향력을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모든 분석은 저소득층의 과대표집을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한 상태로 분석한다.

## 3.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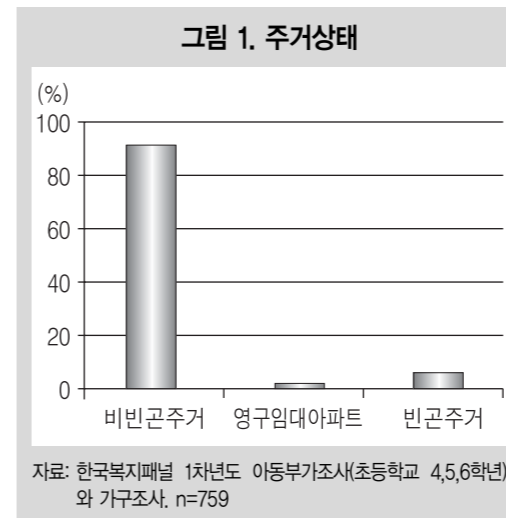
### 1) 기술분석

기술 분석 결과는 표본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기술 분석 결과 중 주요한 변수만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상태의 경우 초등학교 4,5,6학년 중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가구가 총주택 재고 대비 2.97%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부분 경제 활동이 왕성한 가구여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의 자격을 얻기가 어려우며, 입주자격을 얻더라도 낙인을 우려해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아동이 없는 가구보다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이 하나이거나, 화장실·부엌·목욕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동가구는 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2% 전국 census 자료를 이용한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국적으로 16.6%로 나타났다(박신영, 진미윤, 최은희, 2002)는 점을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동가구는 가구주가 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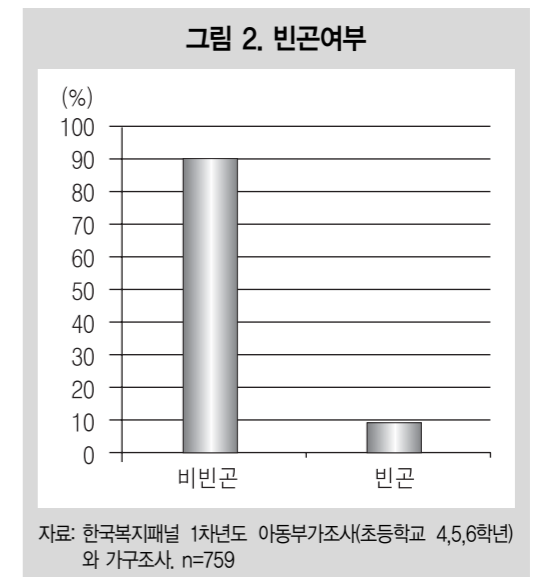
4,5,6학년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9.6%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2006년 경상소득 기준 아동빈곤율 8.88%와 유사한 수치<sup>18)</sup>이다(구인회, 문혜진, 임세희, 2008<sup>19)</sup>).

### 2) 학업성취 모형

주거가 아동의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거는 비빈곤주거에 비해 통계

18) 구인회, 문혜진, 임세희(2008)의 아동빈곤율은 0~19세 이하의 아동빈곤율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4,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빈곤율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19) 구인회·문혜진·임세희(2008). 외환위기 이후 빈곤 추이와 공공부조개혁, 평가와 과제. 발간준비 중.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빈곤주거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주거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주거가구모형에서 보듯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는 빈곤주거가 가구의 소득, 사교육비, 모의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공공임대주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비빈곤주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빈곤밀집효과를 보여주는 절대빈곤과 빈곤주거 상호작용항 뿐만 아니라, 절대빈곤

17) 박신영·진미윤·최은희(2002). 주거빈곤계층의 공공주택소요 규명. 도시연구, 제8호.

표 1.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주거모형(모형1)		주거 가구모형(모형2)		주거가구 상호작용모형(모형3)	
변수	비표준화계수 (s.e)	변수	비표준화 계수(s.e)	변수	비표준화 계수(s.e)
상수	3.552(.035)***	상수	2.796(.192)***	상수	2.785(.192)***
임대주거	-.063(.266)	임대주거	.052(.259)	임대주거	-.170(.303)
빈곤주거	-.425(.137)***	빈곤주거	-.284(.134)**	빈곤주거	-.257(.147)*
		성별	-.030(.065)	성별	-.033(.065)
		양부모여부	-.063(.119)	양부모여부	-.059(.119)
		모교육	.130(.032)***	모교육	.132(.032)***
		절대빈곤	.048(.122)	절대빈곤	.036(.131)
		사교육	.007(.002)***	사교육	.007(.002)***
		절대빈곤임대상호작용		절대빈곤임대상호작용	.804(.583)
		절대빈곤빈곤주거 상호작용		절대빈곤빈곤주거 상호작용	-.140(.358)
F값	sig	F값	sig	F값	sig
4.807	.008***	9.063	.000	7.290	.000

n=715, \*\*\* p<.01 \*\* p<.05 \* p<.10

과 공공임대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사례연구와 심층면접으로 드러난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집합적 사회화가 아직 아동의 학업성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아동의 학업성취가 자기 응답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5분위 등급이지만, <표 1>의 기술통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주 못함 혹은 중간 이하라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의 9.0% 불과하다. 과대응답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면 공공주택에 사는 것의 영향이 없거나 다

소 긍정적인 효과로 가져 올 수 있다는 외국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Cumie & Yelowitz, 2000<sup>20</sup>; Newman & Harkness, 2000<sup>21</sup>). 공공주택은 민간 시장에서 적절한 질의 주거,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는 저소득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3) 학교폭력피해 모형

주거가 아동의 학교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모형과 달리 빈곤주거는 빈곤주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임대주거는 아동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p<.10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거여부가 학교폭력 피해의 표적 특성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대주거가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빈곤주거와 임대주거의 영향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 데이터상에서 빈곤주거와 임대주거의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임대주거의 영향이 사라졌다가 절대빈곤 임대주거상호작용항이 추가되자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생겼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주거가구 상호작용 모형(모형3)의 임대주거 변수는 절대빈곤하면서 임대주거에 사는 경우의 영향은 제거한 상태의 영향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수준 자체가 아니라, 임대주거여부가 학교폭력의 표적특성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질적인 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거의 낙인(sigma)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주거가 아동의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주거모형(모형1)		주거 가구모형(모형2)		주거가구 상호작용모형(모형3)	
변수	비표준화계수 (s.e)	변수	비표준화 계수(s.e)	변수	비표준화 계수(s.e)
상수	1.758(.100)***	상수	6.047(.862)***	상수	6.048(.862)***
임대주거	1.304(.756)*	임대주거	1.128(.726)	임대주거	1.460(.853)*
빈곤주거	-.002(.390)	빈곤주거	-.093(.376)	빈곤주거	-.015(.411)
		성별	-.181(.184)	성별	-.175(.184)
		양부모여부	-.210(.336)	양부모여부	-.222(.337)
		모교육	.091(.085)	모교육	.086(.086)
		절대빈곤	.192(.340)	절대빈곤	.292(.363)
		학년	-.345(.110)***	학년	-.343(.110)***
		자아존중감	-1.458(.219)***	자아존중감	-1.454(.220)***
		친구비행	.171(.047)***	친구비행	.173(.047)***
		절대빈곤임대상호작용		절대빈곤임대상호작용	-1.261(1.636)
		절대빈곤빈곤주거 상호작용		절대빈곤빈곤주거 상호작용	-.520(1.008)
F값	sig	F값	sig	F값	sig
4.807	.008***	9.160	.000	7.556	.000

n=715, \*\*\* p<.01 \*\* p<.05 \* p<.10

20) Currie & Yelowitz. (2000). Are public housing projects good for ki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5.  
 21) Newman & Harkness. (2000). Assisted Housing and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Children.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9.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결과 주거가 관련 요인을 통제된 후에도 아동의 학업성취와 학교 폭력 피해 경험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주거 아동은 비빈곤주거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가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물리적 열악성은 가구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넘어서 아동발달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일수도 있으며(Sandel et al, 1999<sup>22)</sup> Evans et al, 2001<sup>23)</sup>), 혹은 부모의 우울이나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한 부적절한 양육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공부할 공간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다. 비록 통계적 유의도는  $p = .108$ 이었으나 빈곤주거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하루 평균 TV시청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임대주거는 아동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p < .10$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거여부가 학교폭력 피해의 표적특성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임대주거의 낙인과 차별이 단순한 거주민의 주관적인 인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주아동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언어적,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주거가 빈곤주거에 비해 물리적 열악성은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

빈곤주거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낮은 학업성취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동이 있는 빈곤주거 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학교 폭력 피해의 표적특성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급 위주의 주거 정책보다는 수요 위주의 주거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문**

22) Sandel, Sharfstein & Shaw. (1999). There's No Place Like Home: How America's Housing Crisis Threatens Our Children. (San Francisco, CA, Housing America and Doc4Kids Project, Boston, MA).

23) Evans, Saegert & Harris. (2001). Residential Density and Psychological Health among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Environment & Behavior* 33, no. 2